무할례시에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A

오늘은 무할례시에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4 :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로마서 4 :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우고 있어야 할 말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4 :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천국도 없읍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 불가능의 짐을 지고 허덕여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시합니다.

로마서 4 :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여기엔 전인류를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구절을 찾아 보십시다.

창세기 15 :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 : 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 : 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 :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
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 :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7 인을 거느리고 일개 개인으로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야간 기습으로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 오고 난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카를 구해 왔지만 그의 마음에 왕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를 죽이지 않을 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내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으니, 어렸을 적 부터 내가 자식처럼 키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며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일은 할례를 받기 전 적어도 14 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의로 여겨 주었다는 말에서 "여기다" 하는 말은 reckon 또는 impute 로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해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었다. 의로 선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줌에 의해 아브라함은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 갑니다.

칭의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구원론 여덟째 주 '칭의'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실이 무할례시에 있었다는 것이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읍니다.

I. 우리는 무할례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다.
먼저 17:1 을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7 : 1 아브람의 구십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음 9 절과 10 절 11 절,
창세기 17 :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 :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 :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Genesis 17:11 (NKJV)
11 and you shall be circumcised in the flesh of your foreskins, and it shall be a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you.

아브라함이 몇살 때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 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 나셔서,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15 장에서 나오고 할례에 대한 명령은 17 장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적어도 14 년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사실은 15 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16 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의 탄생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86 세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6 :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륙세이었더라 -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86 세에 이스마엘을 생산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사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5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85 세가 되기 전에 생긴 일이고, 99 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할례를 받기 14 년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할례가 의미하는바가 무엇인가 알고 가십시다.

창세기 17 :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구절에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징은 sign, mark 입니다. 이것은 할례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 언약이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없이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겠다는 언약을 할례라는 표징으로 형상화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없이는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읍니다.

III. 다음은 무할례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할례시가 아닌 무할례시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로마서 4 :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 사도 바울 은 이 구절을 강조합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시에에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였읍니다. 무할례시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4 :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라는 말을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깨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음과 같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 눈에 보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읍니다. 그레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 :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믿음에 의해 하니님께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읍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유대의 며느리 다말, 여호수아 서에서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룻기에는 이방인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된 룻, 등이 있읍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되게 히는 복음이 벌써 아브라함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 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 :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계획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창세전 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 :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 부름을 입은 것을 자랑함과 같이 우리도 이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다른 것이 아닌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확연한 간격과 거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이 간격과 거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과 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 :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서 2 :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의 무할례시의 신분에 대하여 무할례당이다. 언약에 대해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깨뜨려 모세의 율법을 파하심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간격과 거리를 깨뜨리셨읍니다

에베소서 2 :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에베소서 2 :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라는 것은, 무할례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들, 언약의 민족인 유대인들과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피로 인해 가까와졌다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아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원수되게 한 것, 곧 의문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파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안에서 한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살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길 계획하셨읍니다.

에베소서 2 : 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 :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간격과 거리는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안에서 중생으로 인하여 새사람을 우리 안에 지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 하나의 형제로 손을 잡는 것, 이 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 : 17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 :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 :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 :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창세기 때부터 보이신 것입니다.

때가 차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깨뜨려 모세의 율법을 파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할례자와 무할례자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심으로 이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서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십시다. .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